

그西山嶺으로 넘어갔다. 이웃집中華大陸은八十餘年來로列國의束縛과內亂의風雲이激甚이더니 戊辰年에비로소孫逸仙先生의遺囑을遵奉하여 反帝國主義를標榜삼은北伐軍은支那本部를平定시키고 首府를南京에奠都하엿음은 永遠이不朽할新記錄을戊辰君이치엿었다.

그러면 우리朝鮮에는엇더한보안측한記錄을치키고終幕을다치는가? 天地가晦冥에들어간後에는 日月이光明을일코 江山이따라서色彩가엄시되얏다. 宇宙은廣漠하다하나 빛업는朝鮮이요 蒼生億兆로해아리나 興味업는우리民族이다. 이와갓치戊辰을回想함에덕죄悲哀와恐怖를느낄뿐이요 旱魃의災殃으로農業에失敗을준戊辰君은 數萬石의減收을보게하여飢渴로배급하올고 吳越고리는幾百萬의餓殍民을남긴것이戊辰君의所産이다. 自由의喪失을보고平和의破壞를當한 우리二千萬民衆은이暗黒의天地 凄慘의江山에凋落蒼丁한生活을抛棄하고 그를維持하라 그를保全하라 千辛萬苦를다맛보며 그래도오히려堪耐의길이업는 그애는愛着戀結의餘情이배여잇는鄉山을떠나 流轉漂泊의生涯를異域寒窓에보내게된다. 또는朝鮮各地로부러幅濶하는消息을들으면 社會百態가다들人으로萬斛荒涼한 생각을풍기하는바가

의揮取와壓迫을當할외담이업다. 第一流이니第二階級의니區別을부치게됨은그가畢竟因襲의道德과 野慾의私心에서생겨난惡魔의心性일것이다. 그럼으로全世界의으로思想의改造、制度의革新을標榜하고 奮起勃發한解放運動의소리는近日에와서더욱높게되얏다. 그種類은無產者解放 民權擴張、男女同等、그와갓치들자면말마라도잇습것이다. 그意義는人類가人類로하야 다갓을權利를누리며다갓을 自由를獲得하자는極點에歸一할것이다. 然

만라。處々에 이러나는無產者의悲號 資本主의拔扈이엇다。 日月의明明々한天地에셔도 何等의曙光을發見치못하고 오즉暗黒한洞窟에沈在하얏스며 花鳥가嘲歌하는麗水江山에셔도 何等의美景을玩賞할物質의餘裕가업서엇다. 다갓寂寞한一隅廢墟에서 嗚咽含淚長嘆이요 餘地업시그의存在外지認定되얏다할가말가!?

人世가그리하고興廢의歷史가 또한그리하다하지만 運命의薄幸함이엇지와갓치 極度에達하얏느냐!! 허물업는우리生靈으로는 人世를憎惡하는同時에戊辰君을呪咀치아니할수업다. 人世에惡魔와豺狼이만타하면 戊辰君은狎術이업는者요 慧眼이업는者라할것이다. 그러나우리는 戊辰君에게運命을仰托하고 哈 소업은아니한다. 어두운속에해매이면셔도 一條의光明을차지라고 肉彈의힘을쓰는것이다.

(11)

朝鮮無產階級은世界的으로類例가업는敗滅의運命을當面하고잇다. 다갓들人類로서 物質、權力、地位가不足함으로 蹂躪을當하고壓迫을바타온것이 오늘날지繼續이다. 우리가가장公平하고 冷靜한態度로人生을觀察하고 살어나간다면 같은人類라는그根本義에서何等

故로廢墟에몰여살어가는그속에셔도 一條光明이될만한記錄은思想發展과社會運動이엇다. 그러나過去戊辰一年의朝鮮은大體로보아 悲哀와沈痛만나져두고갓다. 吾人은過去를悲觀하느니보다過去의轍을嚆하여當來의鑑을作하기外에는 다른道理가업습것이다. 속히西歐의社會運動과東亞의社會運動이連結되야집을 筆者는이갓치切祈하야마지안는다.

그 사람 은 !

유 문 생

輾轉反側 잠을일우지못하겠스니 이어닌일고 새벽별알에서 손잡고離別한년업스니 이半夜에어느누구그리다! 그러나 잇는듯업는듯 업는듯잇는듯 이마음 풀스결우에서 잠약질하는 그사람은내이지못한것이파 깬이다.

바람 과 모든緊要를부리는 저음은지나가고 平和의 沈澁을

생각해두엇하리 새날의 展開活躍을기버할생일것이다 보라! 오랜꿈은 깨지안엇나 朝鮮佛敎界의 오랜꿈은 깨지안엇나 昨年中 學人大會 青年大會 布敎師會 佛取開校 全朝鮮僧侶大會發起는 이를말함아닌나말이다. 그러나 우리는 이것들의비릇으로외 滿足을느기지못할것이 勿論인同時에 뜻잇는사람들의奮闘

뜻잇는사람! 이는果然구구일것이며 어데잇습는가?

인간으로서 말하리라 하면 既成名士들中에 보다 비토리온
듯純眞하고 蠻勇인듯義舉있는學生界의그사람들이라하
겠다.

보라! 荆棘이滿天한 이다우에서 燕尼服의일류의
일마나勳力이 되겠으며 送秋波의關事가 언발에 오줌
누기보다 일마나 수효를누기라 범을보고怯내는者나아
가스사로禍를입으리하이나 모름이拂拭立할것이요
蓬境에處한者一風餐露宿을몰아보지안는데서 成功의
寶冠이 낮하난다는것이다. 内外에있는朝鮮佛敎學生同志
는창으로가을할진커

그러나 이어긋음을멈추고 우리學生界를 살펴볼제
以上에말한期待가 적어짐을누기지안음 수업을을 해
다를때愕然長太息의 나도몰내 목구멍을비잡게한다.
近來學生의 十數年前그예에比하여一般으로熱이적어졌
다는말은 몹시분하게듣기나 그러나변명못할事實이며
더구나 우리佛敎學生界가그리하다는것은 아무리 우
리環境이環境이라할지라도 붓그림을을 누기지안음누
었다는것이다.

果然그리하다 마음은모은자리에서 義淚를쏟림이
일마나되퍼 영영이되든마당에서 大衆을옹집임이일마나

되는가 두사람만 모이면 돈이약이요세사람만모이면
戀談이나오나니 이가비로篤工한나머지에 心身의疲勞
를쉬우는漫談이라할지라도·오날우리로서는取할바가아
니라할것이다. 레니스체代身에 광이들들지안으려나
團遊會머신에結義團을組織하지만으려나 自己全生命을
들어大衆公事에바치지안으려나 우리들의오날犧牲으로
死後代永世의福樂을만들지안으려나

아! 이夜半에 내잠을일우지못함이며 그리운사람을
잊지못함이로다.

社 告

○本社에對한金錢通信은左記住所로하며주심을바람이다
○本社에對하여同情한여러분에게感謝를들이오며아름디
健康도비나이다.

○本誌拾部以上을한곳에서注文하오면 定價의二割로더
리겠습니까

東京市外澁谷町氷川一〇

金剛杵社白

佛 青 年 的 一 言

許 永 鎬

어리한題目아래서 여러분의게 말할 고말칠만한
信이 나의게 있는지 없는지 나는 모른다. 그만큼
나는 모든것을 돌보고 反省할餘裕를 가지지안는다
다맛 모든것을 후리치고 무슨말이라도 해야하겠다
는 精神衝動이 나로하여공 이러한題目아래서 붓을
들게한것만은 眞實노告白한다.

그런때문에 여러분의게向해서 佛陀의法을 말한다
는것은 지금나의게는 맞지안는다. 無常의理를 말한
다는것은 맞지안는다. 無我的法을 말한다는것은 맞
지안는다. 하물며 五蘊을말하며 六入을말하며 十二
相緣을말하며 正道를말하며 涅槃을 말하겠느냐?

여러분의理智에 여러분의體驗에 여러분의生活理想
에안의 여러분의生活焦點에 다맛 물어보고 하소연
하라는데뜻이다. 그런데문에 어떠한生活感情을 가졌
고어떠한生活理想을가졌거나 生活그것을 凝視하라는
여러분의게는 반듯이 다음瞬間에는 버린다하더라도

나의말을 여러분의生活에 스를通해에 여러분의生
活焦點의우에 가쳐다보리라고는 생각한다. 이것의
나의推論에만 의치지안는다하면 나의의말은 그감정
을간것으로 생각하라한다.

모든意味에잇서 現代만치 生活에대해서 關心한
時代는 업스리라고 생각한다. 現代만치 生活에대해
서 熱中한民衆은 업스리라고 생각한다. 그만큼 生
活處의激變 生活路의錯亂 生活人의狂奔이 社會的으
로 混亂線으로 生活過程의우에 그린새 그런곳이
업스리라고 생각한다.

그러면 여러분은 이生活難의微背 이生活苦의深刻
을어떻게 보라고하는가? 나는 이것을 못고싶다.
이것을 알고싶다.

여러분은 어떻게 보라고하는가? 어떻게 보는
가? 나는 못고싶다. 이社會現象은 여러분의生活을
通해서 밧서 生活焦點의우에 어떤映象을 그리슬것